

중학생의 직업가치에 관한 연구*

김정숙**

초 록

본 연구는 중학교 청소년들의 직업가치가 배경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또한 어떤 변인들이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4년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의 중학교 3학년생 3,449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직업가치에 관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직업가치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직업가치는 네 개의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직업가치 요인들의 차이 분석 결과, 부모의 학력 및 직업, 학생의 성별, 교육포부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업가치 요인들에 어떠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가정배경 변인들의 영향보다는 성별, 학업성취, 학생의 교육포부 수준, 성역할 태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분석 결과, 직업가치에 대한 측정을 정교화하고 직업가치에 대한 선호가 가정배경 변인 및 학생 개인특성 변인과는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에 대한 추후 분석의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중학생, 직업가치, 외적 보상, 내적 보상, 성역할 태도

* 본 논문은 제2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산업구조의 변화 및 대중매체의 발달은 직업에 대한 선호나 포부에서의 변화를 초래한다. 의사, 학자, 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한 선호가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지만, 연예인, 운동선수,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선행은 10년 전만 해도 흔하지 않은 일이었다. 직업 선호에 대한 이러한 변화는 직업으로부터 추구하는 가치가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개인이 직업 또는 직업 활동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를 나타내는 직업가치는 직업선호나 직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본격적인 직업탐색이 이루어지는 청소년 시기의 진로지도는 각 개인이 직업을 통해 추구하려는 가치를 고려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직업가치에 대한 탐색과 명료화 작업이 합리적인 진로결정에 선행하기 때문이며, 또한 개인이 직업으로부터 추구하는 가치와 개인이 선택한 직업적 특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직업 분야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낮은 직업만족도를 나타냄으로써 개인적,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옥, 1993; 양한주·정철영, 1998). 이처럼 직업가치에 대한 논의는 직업으로부터 기대하는 보상을 밝혀줌으로써 진로결정과 직업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상술한 직업가치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국내에서도 직업가치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직업가치에 관한 기술적인 분석에 그치거나, 직업가치를 직업포부 및 직업선택에 관한 분석 과정의 일부분으로 다룸으로써(진동렬, 1996; 류인자, 1999; 정사교, 1999; 안도현, 2000; 강영배, 2004) 직업가치가 어떤 제변인들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수행하지 못했다. 또한 연구대상이 주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김동수, 1987; 박광춘, 1992; 이은경, 2002; 박보경·이종승, 2002), 다양한 연구 대상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점도 발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직업가치에 관한 연구에서 간과되어 왔던 중학생의

직업가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¹⁾ 중학교 단계는 진로 지도 및 직업선택으로 연결 되는 고등학교 계열선택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학교 학생들의 직업가치에 대한 연구는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배경요인에 따라 중학생들의 직업가치가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그리고 어떤 요인들이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는 직업포부 및 직업선택, 나아가 직업성취의 차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문제

상술한 연구목적에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중학생들의 배경변인에 따라 직업가치 요인들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직업가치는 어떤 배경변인의 영향을 받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직업가치의 의미

직업가치는 개인이 직업으로부터 기대하는 보상이나 특질로 정의된다(Hearn and Olzak, 1981; Herzog, 1982; Daymont and Andrisani, 1984; Leuptow, 1980; Marini et al., 1996). 이러한 직업가치는 전공선택이나 직업포부 및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직업가치를 규명하고 평가해 주는 것은 그들의 직업탐색과 직업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다(이옥, 1993).

1) 이옥(1993)과 이석재(1989)의 연구는 선행연구 가운데 드물게 청소년의 직업가치를 심도있게 분석하였다. 그렇지만 이들 연구 역시 연구 시점이 오래 되었다는 점과 연구대상을 고등학생에 한정시키고 있어 일정한 제한점이 있다.

직업가치는 크게 내적 보상과 외적 보상으로 구분된다. 내적 보상은 직업 자체의 가치나 중요성에 의미를 두는 것으로 여기에는 적성과 흥미추구, 사회헌신, 인간관계 중심주의, 이상주의, 자기표현의 내용이 포함된다. 반면 외적 보상은 보수, 위세와 같은 도구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권력추구, 경제적 가치추구, 사회적 인식 중시, 안정추구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김병숙 외, 1998).

직업가치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면서, 직업가치 요인도 더욱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구명되고 있다(Marini et al., 1996). 예컨대, 내적 보상과 외적 보상으로만 분류되던 직업가치는 타인을 돕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중시하는 “이타적 보상”,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고 친구를 사귄 수 있는 기회에 의미를 두는 “사회적 보상”,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을 남겨둘 수 있고 관리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천천히 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해 주는 직업인지의 여부를 중시하는 “여가와 안정성에 대한 보상”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2. 직업가치 관련 요인

청소년의 직업가치에 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직업가치는 개인특성, 가정배경, 사회심리적 변인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직업가치와 관련되는 개인특성 변인에는 성별과 학업성취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서도 성별은 직업가치에서의 차이를 가져오는 핵심적인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헤르조그(Herzog, 1982)는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업계획과 직업가치, 선호하는 직업환경 유형을 조사한 연구에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직업의 상호개인적인 측면, 이타적 요인, 자아실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직업으로부터 얻는 물질적 보상과 직업 외적인 자유 시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한 바 있다.

상술한 직업가치에서의 성별 차이는 대학에서의 전공선택 및 직업선택에서의 차이를 가져오기도 한다(Marini and Greenberger, 1978; Eccles, 1994). 즉 남학생들은 노동시장에서 높은 지위와 보수를 제공하는 전공을 선택하고 그러한 전공영역에서 더 좋은 교육적 경험을 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시장성이 약한 전공을 선

택하고 졸업 후 더 낮은 지위와 보수를 받게 된다. 데이몬트와 앤드리사니(Daymont and Andrisani, 1984)는 직업에 대한 선호와 준비에서의 남녀 차이가 임금 격차의 실질적인 부분을 설명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남성과 여성은 각자가 선호하는 직업가치에 따라 상이한 직업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직업가치에서의 성별 차이에 관한 몇 가지 연구는 직업에 대한 흥미 요인이 성별 차이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며,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직업에 대한 흥미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Major and Konar, 1984; Marini, 1989; Marini et al., 1996). 반면 여성에게 임금은 남성에 비해 그 중요도가 낮다고 알려져 있다(Major and Konar, 1984; Marini et al., 1996; Heckert and Wallis, 1998; Heckert et al., 2002). 한편 국내에서 수행된 청소년의 직업가치에 관한 연구에서는 다소 엇갈린 연구 결과들이 소개되고 있다. 이를테면 이석재(1989)의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남학생들은 외적 보상을 중시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사회적 보상과 남을 돕는 등의 이타적 보상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나 국외 선행연구들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옥(1993)의 연구에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외적 보상을 더욱 중시하였고 이는 서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업가치를 조사한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직업가치와 관련되는 또 다른 개인특성 변인에는 학업성취를 들 수 있다. 직업에 따라 상이한 수준의 능력과 자격이 요구되는 바, 학업성취는 직업가치에 대한 상이한 선호와 기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볼 수 있다(최병률, 1986).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개인특성 변인으로 교육포부 수준을 고려하였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학생의 교육포부 수준은 그들의 직업포부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김경숙, 1983; 홍영란, 1983; 최영준, 1990). 즉 욕에 대한 기대가 높은 학생들은 높은 지위가 보장되는 직업을 획득하고자 하는 열망 또한 크다는 것이다. 직업포부 수준이 직업가치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직업가치가 직업포부 수준의 근간이 되는 개념이라고 볼 때, 교육포부 수준이 직업가치 요인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배경 변인으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들 수 있다. 특히 부모의 교육수준 및 직업지위는 부모가 중시하는 직업가치와 밀접히 연관되어 자녀들의 직업포부 및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이트와 라이트(Wright and Wright, 1976)에 따르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자기주도

성을 강조하는 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부모들은 사회에 대한 순응을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강조했다. 이는 부모의 학력과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직업지위가 높은 분야에 대한 포부수준과 선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 수행된 양한주·정철영(1998)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학생일수록 직업으로부터 높은 소득과 지위 등의 외적인 보상 및 자율성을 더 높게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가정의 소득수준 및 거주지 변인을 분석에 추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변인에는 대표적으로 성역할 태도를 들 수 있다. 성역할 태도는 가정과 학교 및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성역할 사회화를 통해 형성된다. 성역할 태도는 남성과 여성에게 성역할에 대한 상이한 가치를 내면화하게 함으로써, 성별 전형적인 직업을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리니와 동료학자들(Marini et al., 1996)은 성역할 태도가 남성과 여성에게 상이한 직업가치를 추구하게 하며, 직업성취에서의 성별 격차는 직업가치에서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정리한 바 있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청소년의 직업가치를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2004년에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이하 KYPS)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는 2003년에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과 학부모를 추적 조사한 2차년도 자료로서, 조사대상은 모두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다. 조사대상 인원은 총 3,449명이며, 표집 지역은 서울시 534명(16.6%), 광역시 974명(30.4%), 기타 중소도시 1,701명(53.0%)으로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2. 변인설정

1) 독립변인

독립변인에는 크게 학생 개인특성 변인과 가정배경 변인 그리고 사회심리적 변인을 포함시켰으며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우선 학생 개인특성 변인으로는 학생의 성별과 학업성취, 교육포부 수준을 포함시켰다. KYPS에서는 학생의 학업성취를 학급내 석차 백분율과 전교 석차 백분율, 중3 학생의 전국 모의고사 석차 백분율로 조사하였다.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시험인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한 전국 석차 백분율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결측치가 많은 관계로 학급내 석차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값이 낮을수록 학급에서 학업성취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교육포부 수준은 전문대졸 이하, 4년제 대졸, 대학원 이상으로 범주화하여 사용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주요 배경변인별 분포

구 분			빈도(명)	비율(%)	합계: 명(%)
개인특성 변인	성별	남	1,604	50.0	3,209(100.0)
		여	1,605	50.0	
	학업성취	학급내 석차 백분율	2,923	100.0	2,923(100.0)
	교육포부 수준	전문대졸 이하	319	10.1	3,157(100.0)
		4년제 대졸	2,235	70.8	
		대학원 이상	603	19.1	
가정배경 변인	부 학력	고졸 이하	1,771	56.3	3,145(100.0)
		전문대졸 이상	1,374	43.7	
	모 학력	고졸 이하	2,377	76.1	3,124(100.0)
		전문대졸 이상	747	23.9	
	부 직업	고위직,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1,248	41.5	3,008(100.0)
		서비스, 판매직, 기능직	1,760	58.5	
	모 직업	유	1,528	53.4	2,863(100.0)
		무	1,335	46.6	
	월평균 소득	200 만원 미만	612	20.5	2,983(100.0)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602	53.4	
		400만원 이상	769	25.8	
	거주지	대도시	1,508	47.0	3,209(100.0)
		중소도시	1,701	53.0	
사회심리 변인	성역할 태도	전통적인 여성역할	3,205	100.0	3,205(100.0)
		전통적인 남성역할	3,195	100.0	3,195(100.0)

가정배경 변인으로는 부모의 학력 및 직업, 가정의 소득수준, 거주지 변인을 설정하였다. 부모의 학력은 전문대졸 이상과 고졸 이하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아버지의 직업은 고위직, 전문가 및 준전문가, 사무직 집단과 서비스, 판매직, 기능직 집단으로 구분하였고,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분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가정의 소득수준은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세 집단으로, 거주지는 서울과 광역시 등 대도시와 중소 도시로 분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사회심리적 변인에는 성역할 태도를 포함시켰다. KYPS에서 성역할 태도는 5점 척도로 조사되었다. 성역할 태도는 성별 위계관계에 관한 여섯 가지 문항 가운데 전통적인 여성역할에 관한 세 문항과 전통적인 남성역할에 관한 세 문항을 합산하여 나온 값을 사용하였다.²⁾ 성역할 태도 점수가 높을수록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2) 종속변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종속변인은 직업가치 변인이다. KYPS에서 직업가치는 15개 문항으로 조사되었다. 직업가치에 관한 문항은 ① 돈을 많이 벌 수 있음, ② 권력이 많음, ③ 사회적 명예가 높음, ④ 시간적 여유가 많음, ⑤ 쾌적한 환경, ⑥ 안정적으로 일함, ⑦ 더 배우고 발전할 가능성, ⑧ 사회에 대한 봉사, ⑨ 자유재량권이 많음, ⑩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음, ⑪ 새로운 시도를 할 기회, ⑫ 리더십 발휘, ⑬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일함, ⑭ 소질과 적성에 부합, ⑮ 학력이 높지 않아도 직업획득 가능의 내용으로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직업가치 요인을 추출하기 위해 15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

2) 성역할 태도에 관한 문항은 성별 위계관계에 관한 여섯 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세 문항은 전통적인 여성 역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여자는 사회적 성공보다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자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 남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더 보기 좋다”, “여자는 얌전하고 순종하는 것이 여자답고 좋다”). 한편 나머지 세 문항은 전통적인 남성 역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남자에게는 사회적 성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남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남자는 어느 정도 남을 지배할 줄 알아야 남자답다”). 여섯 가지 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 전통적인 여성역할과 전통적인 남성역할의 두 가지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석은 주성분(principal component)과 직각 회전(varimax rotation)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요인부하량이 .5를 넘지 않거나 직업가치 문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두 가지 문항(⑫, ⑮)은 제외하였다. 그리고 각 요인으로 묶인 문항에 대하여 Cronbach's α 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직업가치에 관한 요인분석

문 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돈을 많이 벌 수 있음	.772	-	-	-
권력이 많음	.880	-	-	-
사회적 명예가 높음	.839	-	-	-
시간적 여유가 많음	-	.779	-	-
쾌적한 환경	-	.726	-	-
안정적으로 일함	-	.674	-	-
자유재량권이 많음	-	-	.576	-
다양한 일을 함	-	-	.798	-
새로운 시도를 할 기회	-	-	.798	-
더 배우고 발전할 가능성	-	-	-	.654
소질과 적성에 부합	-	-	-	.610
사회에 대한 봉사	-	-	-	.537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일함	-	-	-	.660
고유치	2,822	2,104	1,508	1,216
설명량	21,709	16,187	11,604	9,353
Cronbach's α	.805	.629	.625	.510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직업가치는 4개 요인으로 추출되었다. 요인 1은 외적 보상, 요인 2는 여가안정성 보상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요인 3과 요인 4 가운데 ‘더 배우고 발전할 가능성’과 ‘소질과 적성에 부합’은 내적 보상으로, 요인 4의 나머지 두 문항은 이타적·사회적 보상으로 추출된다(Herzog, 1982; Marini et al., 1996).³⁾ 직업 자체로부터 얻는 만족을 뜻하는 내적

3) 엄밀하게 말하면 KYPS의 자료에서 추출된 이타적·사회적 보상의 내용은 불완전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타적·사회적 보상의 내용인 ‘사회에 대한 봉사’와 ‘여러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일할 수 있음’은 선행연구에서 소개된 바와 같이 타인을 돕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중

보상과, 직업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사회에 대한 기여를 중시하는 이타적·사회적 보상은 직업의 외형적인 조건이 아닌 내재적인 특성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직업가치 이론과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두 요인은 명백히 구별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서는 직업가치 이론과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직업가치 문항을 외적 보상, 내적 보상, 여가안정성 보상, 이타적·사회적 보상으로 분류하고,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을 합산하여 문항 수로 나눈 값을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3. 분석방법

중학생의 배경변인에 따라 직업가치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와 직업가치에는 어떤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우선 배경변인에 따른 직업가치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직업가치 요인별로 중다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시 독립 변인들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고려하였는데,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의 상관관계가 .694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의심되므로 어머니의 학력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IV. 연구결과

1. 직업가치에서의 차이

여기에서는 네 가지 직업가치 요인을 부모의 학력과 직업, 학생의 성별, 교육포부

시하는 “이타적 보상”의 내용과 많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고 친구를 사귄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하는 “사회적 보상”의 내용을 한 문항씩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이타적·사회적 보상은 이타적 보상과 사회적 보상의 내용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측정의 타당도 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수준과 같은 주요 배경변인별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우선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직업가치 요인별 평균을 살펴보았으며 <표 3>에는 직업가치 요인의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표 3> 배경변인별 직업가치 요인의 평균

구 분		외적 보상	내적 보상	여가안정성 보상	이타적·사회적 보상
부 학력	고졸이하	3.052(.794)	3.364(.622)	3.274(.772)	3.659(.729)
	전문대졸 이상	3.179(.811)	3.481(.647)	3.411(.754)	3.705(.741)
모 학력	고졸이하	3.078(.797)	3.382(.631)	3.305(.768)	3.665(.736)
	전문대졸 이상	3.211(.819)	3.537(.641)	3.429(.758)	3.731(.712)
부 직업	서비스, 판매직	3.080(.792)	3.382(.617)	3.318(.765)	3.674(.744)
	고위직, 사무직	3.155(.820)	3.476(.656)	3.380(.771)	3.682(.727)
모 직업	직업 유	3.096(.799)	3.408(.635)	3.357(.766)	3.663(.744)
	직업 무	3.122(.807)	3.442(.634)	3.312(.768)	3.695(.715)
성별	여	3.102(.851)	3.449(.663)	3.319(.772)	3.661(.757)
	남	3.113(.762)	3.394(.616)	3.339(.770)	3.690(.718)
학생 교육포부 수준	전문대졸 이하	2.719(.792)	3.459(.632)	3.066(.775)	3.668(.756)
	4년제 대졸	3.055(.754)	3.382(.634)	3.339(.768)	3.654(.725)
	대학원 이상	3.471(.844)	3.518(.649)	3.451(.747)	3.759(.763)
전체		3.108(.804)	3.419(.638)	3.331(.771)	3.677(.736)

주: ()은 표준편차

우리나라 중학생들은 직업가치 네 요인 가운데 특정 요인에 대한 뚜렷한 선호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네 요인 모두에 대해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크지는 않지만 직업가치 요인의 전체 평균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중학생들은 이타적·사회적 보상, 내적 보상, 여가안정성 보상, 외적 보상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외적 보상의 경우 나머지 세 요인과 달리 배경변인에 따른 집단간 평균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배경변인에 따라 직업가치 요인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아래에서는 분산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배경변인의 결과만을 제시하였다. 우선 직업가치 요인 가운데 외적 보상에 대한 차이분석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외적 보상에 대한 차이분석

배경 변인	집단	평균 (표준편차)	분산원	자유도	제곱합	제곱합 평균	F	사후검증		
								1	2	3
부 학력	고졸이하	3.052(.794)	집단간	1	9.392	9.392	14.618***			
	전문대졸 이상	3.179(.811)	집단내	2350	1509.778	.642				
	전체	3.109(.804)	전체	2351	1519.170					
모 학력	고졸이하	3.078(.797)	집단간	1	7.571	7.571	11.763***			
	전문대졸 이상	3.211(.819)	집단내	2339	1505.329	.644				
	전체	3.110(.804)	전체	2340	1512.899					
부 직업	서비스, 판매직	3.080(.792)	집단간	1	3.075	3.075	4.762*			
	고위직, 사무직	3.155(.820)	집단내	2262	1460.875	.646				
	전체	3.111(.804)	전체	2263	1463.951					
학생 교육 포부	전문대졸 이하(1)	2.719(.792)	집단간	2	104.422	52.211	86.331***			
	4년제 대졸(2)	3.055(.754)	집단내	2372	1434.525	.605			*	
	대학원 이상(3)	3.471(.844)							*	*
	전체	3.109(.805)	전체	2374	1538.946					

* p< .05 ** p< .01 *** p<.001

부모의 학력과 아버지의 직업 그리고 학생의 교육포부 수준에 따라 외적 보상에서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모의 학력이 높고 아버지의 직업지위가 높은 학생일수록 외적 보상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또한 교육포부 수준이 높은 학생 집단일수록 직업으로부터 높은 임금 및 지위와 명예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외적 보상에 대한 성별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직업가치 요인 가운데에서도 외적 보상에서의 성별 차이는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되는 내용인데 반해(Herzog, 1982; Major and Konar, 1984; Marini et al., 1996), 본 연구에서는 외적 보상에서의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우리나라 중학교 여학생들이 직업의 위세와 소득 등의 직업가치를 중시하는 것은 그들의 부모들이 자녀의 성별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여학생들도 직업의 외재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이 반영된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표 5> 내적 보상에 대한 차이분석

배경 변인	집단	평균 (표준편차)	분산원	자유도	제곱합	제곱합 평균	F	사후검증		
								1	2	3
부 학력	고졸이하	3.364(.622)	집단간	1	7.371	7.371	18.375***			
	전문대졸 이상	3.481(.647)	집단내	2170	870.459	.401				
	전체	3.416(.636)	전체	2171	877.830					
모 학력	고졸이하	3.382(.631)	집단간	1	9.636	9.636	23.993***			
	전문대졸 이상	3.537(.641)	집단내	2159	867.067	.402				
	전체	3.421(.637)	전체	2160	876.703					
부 직업	서비스, 판매직	3.382(.617)	집단간	1	4.473	4.473	11.154***			
	고위직, 사무직	3.476(.656)	집단내	2094	839.803	.401				
	전체	3.421(.635)	전체	2095	844.276					
성별	여학생	3.449(.663)	집단간	1	1.660	1.660	4.083*			
	남학생	3.394(.616)	집단내	2220	902.633	.407				
	전체	3.419(.638)	전체	2221	904.294					
학생 교육 포부	전문대졸 이하(1)	3.459(.632)	집단간	2	7.052	3.526	8.685***			
	4년제 대졸(2)	3.382(.634)	집단내	2196	891.562	.406				
	대학원 이상(3)	3.518(.649)								*
	전체	3.418(.639)	전체	2198	898.614					

* p< .05 ** p< .01 *** p<.001

<표 5>에는 내적 보상에 대한 차이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내적 보상은 부모의 학력 및 아버지 직업, 학생의 성별 및 교육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이 높고 아버지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직업이 소질과 적성에 부합하며, 자기 개발과 자유재량권,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도할 기회 획득에 유리한지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일수록, 교육포부가 높은 집단일수록 직업으로부터 내적 보상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내적 보상을 더욱 중시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는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가안정성 보상은 부모의 학력 및 학생의 교육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학력이 높고 교육포부가 높은 학생일수록 직업에서 근무환경이나 시간적 여유, 안정성을 중시하고 있었다. 여기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최근의 노동시장의 변

화에 따른 고용의 불안정성에 따른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6> 여가안정성 보상에 대한 차이분석

배경 변인	집단	평균 (표준편차)	분산원	자유도	제곱합	제곱합 평균	F	사후검증		
								1	2	3
부 학력	고졸이하	3.274(.772)	집단간	1	11,166	11,166	19,137***			
	전문대졸 이상	3.411(.754)	집단내	2379	1388,049	.583				
	전체	3.335(.767)	전체	2380	1399,214					
모 학력	고졸이하	3.305(.768)	집단간	1	6,800	6,800	11,600***			
	전문대졸 이상	3.429(.758)	집단내	2365	1386,416	.586				
	전체	3.335(.767)	전체	2366	1393,217					
학생 교육 포부	전문대졸 이하(1)	3.066(.775)	집단간	2	23,396	11,698	20,030***			
	4년제 대졸(2)	3.339(.768)	집단내	2397	1399,915	.584		*		
	대학원 이상(3)	3.451(.747)						*	*	
	전체	3.336(.770)	전체	2399	1423,311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이타적·사회적 보상에 대한 차이분석은 <표 7>에 제시하였다. 이타적·사회적 보상은 배경변인 가운데 학생의 교육포부 수준에 따른 차이만이 발견되었다. 교육포부 수준이 4년제 대졸인 집단에 비해 대학원 이상인 집단이 직업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일하는 것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7> 이타적·사회적 보상에 대한 차이분석

배경 변인	집단	평균 (표준편차)	분산원	자유도	제곱합	제곱합 평균	F	사후검증		
								1	2	3
학생 교육 포부	전문대졸 이하(1)	3.668(.756)	집단간	2	4,315	2,158	3.983*			
	4년제 대졸(2)	3.654(.725)	집단내	2413	1307,009	.542				
	대학원 이상(3)	3.759(.763)							*	
	전체	3.678(.737)	전체	2415	1311,324					

* $p < .05$ ** $p < .01$ *** $p < .001$

2.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기에서는 가정배경과 학생의 개인특성 변인들이 직업가치의 요인 각각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직업가치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첫 번째 회귀모형에서는 외적 보상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외적 보상에는 성별, 학업성취, 학생의 교육포부 수준, 성역할 태도, 월평균 소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그리고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외적 보상을 중시하였다. 학생의 교육포부 수준에 있어서도, 전문대졸 이하인 집단 대비 4년제 대졸과 대학원 이상인 집단이 소득, 권력, 명예와 같은 외적 보상을 중시하였다. 특히 교육포부 수준이 대학원 이상인 학생 집단일수록 외적 보상을 중요한 직업가치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통적인 남성 역할에 동의하는 학생들이일수록 외적 보상을 중시하였다. 전통적인 남성 역할에 대한 동의가 외적 보상에 대한 추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다수의 남성들이 도구적 가치를 나타내는 외적 보상을 중시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는 직업에 대한 도구적 가치의 추구가 대체로 전통적인 남성적 역할과 가치로 간주된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표 8> 직업가치에 대한 회귀분석

변인	I 외적 보상	II 내적 보상	III 여가안정성 보상	IV 이타적·사회적 보상
상수	2.391(.124)***	3.537(.106)***	3.277(.121)***	3.640(.120)
성별(남학생=1)	.093(.039)*	-.074(.033)*	.057(.038)	.022(.038)
학업성취(학급석차 백분율)	-.005(.001)***	.001(.001)*	-.006(.001)***	-3.40E-05(.001)
학생의 교육포부수준				
전문대졸 이하				
4년제 대졸	.142(.072)*	-.171(.062)**	.086(.070)	-.088(.070)
대학원 이상	.491(.083)***	-.031(.072)	.112(.082)	.010(.081)
성역할 태도				
전통적인 여성역할	.021(.026)	-.059(.022)**	.027(.025)	-.089(.025)***
전통적인 남성역할	.144(.022)***	-.002(.019)	.019(.022)	.083(.022)***
아버지 학력				
고졸 이하				

변인	I 외적 보상	II 내적 보상	III 여가안정성 보상	IV 이타적·사회적 보상
전문대졸 이상	-.017(.042)	.031(.037)	-.026(.042)	-.008(.041)
아버지 직업				
서비스, 판매직, 기능직 등				
고위직, (준)전문직, 사무직	.018(.040)	.047(.034)	-.032(.039)	.010(.039)
어머니 직업				
직업 무				
직업 유	.045(.037)	.041(.032)	-.031(.036)	.017(.036)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200만원이상-400만원미만	.092(.052)	.045(.045)	.111(.051)*	-.007(.050)
400만원 이상	.122(.062)*	.143(.054)**	.134(.061)*	.048(.060)
거주지				
중소도시				
대도시	.059(.037)	.044(.031)	.035(.036)	.031(.035)
N	1,712	1,592	1,731	1,746
R2	.118	.036	.052	.019
Adj R2	.112	.029	.045	.013

()은 비표준화 회귀계수의 표준오차

*p<.05, **p<.01, ***p<.001

마지막으로 월평균 소득이 높은 학생 집단일수록 외적 보상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양호할수록 직업으로부터 금전적 보상과 권력 및 명예에 대한 선호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이상의 첫 번째 회귀모형의 결정계수(Adj R2)는 .112로 외적 보상에 대한 설명량은 11.2%이다.

두 번째 회귀모형에서는 내적 보상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성별, 학업성취, 교육포부 수준과 성역할 태도, 월평균 소득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일수록 직업으로부터 소질과 적성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발전가능성, 자유재량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획득을 중시하였다. 또한 학업성취가 낮을수록 내적 보상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포부 수준이 4년제 대졸 대비 전문대졸 이하인 학생일수록 내적 보상에 대한 기대가 큼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전통적인 여성역할에 동의하지 않는 학생일수록 내

적 보상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으로부터 소질과 적성 적합도와 발전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 전통적인 여성역할과는 부적 관계에 있음을 시사해준다. 외적 보상과 마찬가지로 월평균 소득이 높은 집단일수록 내적 보상 역시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회귀모형의 결정계수(Adj R²)는 .029로 내적 보상에 대한 설명량은 2.9%이다.

세 번째 회귀모형에서는 여가안정성 보상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가안정성 보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업성취와 월평균 소득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성취가 높을수록, 그리고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직업으로부터 시간적 여유, 안정성, 쾌적한 환경을 중시하는 것을 나타낸다. 대체로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낮은 경우, 직업의 안정성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오히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높은 학생일수록 직업으로부터 안정성 요인을 더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어 가정의 경제적 여유가 오히려 직업 안정성을 더욱 추구하게 만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 회귀모형의 결정계수(Adj R²)는 .045로 여가안정성 보상에 대한 설명량은 4.5%이다.

네 번째 회귀모형에서는 이타적·사회적 보상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타적·사회적 보상에는 성역할 태도 변인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이러한 결과는 성별이 이타적·사회적 보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는 다른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는 성별 요인이 아닌 성역할 태도가 이타적·사회적 보상과 더욱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성역할 태도 가운데에도 전통적인 남성역할이 이타적·사회적 보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이타적 보상과 사회적 보상 모두를 중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이들 직업가치 요인이 전통적인 여성역할 및 가치와 관련되는 것임을 시사하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남성역할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YPs의 이타적·사회적 보상이 함축하는 의미가 서구사회와 우리나라가 다르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요컨대 우리 사회에서 사회에 봉사하는 것은 거시적이고 대의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전통적인 남성역할과 관련된다. 또한 다른 사람과 어울려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팀플레이를 잘 수행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KYPs에서 제시된 이타적·사회적 보상의 문항은 우리 사회에서 전혀 다른 의미

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결과는 KYPS의 설문 내용이 선행연구들과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요컨대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허용하는지의 여부’는 ‘여러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일할 수 있음’과는 엄밀한 의미에서 다르기 때문이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타적·사회적 보상 요인은 측정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이상의 네 번째 회귀모형의 결정계수(Adj R²)는 .013으로 이타적·사회적 보상에 대한 설명량은 1.3%이다.

이상의 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가정배경 변인 중에는 월평균 소득이 그리고 학생의 개인특성 변인들의 다수가 직업가치 요인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추가적인 분석 결과 가정배경 변인만을 투입하였을 때에는 부모의 학력과 월평균 소득이 직업가치 요인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배경 변인이 학생들의 교육포부 수준이나 성역할 태도, 학업성취를 매개하여 직업가치 요인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V. 결 론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직업가치 요인들이 배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 직업가치 요인들은 어떤 배경변인의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들의 배경변인에 따른 직업가치에서의 차이분석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은 내적 보상을 제외한 직업가치 요인들에서 성별 직업가치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외적 보상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현재 중학교 여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직업의 외재적 가치를 중시하는 태도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또한 교육포부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모든 직업가치 요인들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교육포부 수준이 전문대졸 이하 집단이 4년제 대졸 집단에 비해 내적 보상과 이타적·사회적 보상을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자가 후자에 비해 직업의 외형적 조건으로부터 훨씬 더 자유롭고 직업을 통해 자율성과 내적 만족도, 사회에 대한 공헌과 같은 가치를 더욱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 다른 한편 부모의 학력 및 직업지위가 높은 집단일수록 외적 보상, 내적 보상, 여가안정성 보상을 중요하게 간주하고 있었다.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로 하여금 직업의 외적 기준을 중시하고, 직업으로부터 내적 만족을 추구하도록 허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학생의 가정 배경 변인들이 학생들의 직업가치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직업가치 요인들에 어떠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반적으로 가정배경 변인들의 영향보다는 성별, 학업성취, 학생의 교육포부 수준, 성역할 태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남학생들은 외적 보상을 중시하는 반면, 여학생들은 내적 보상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업성취가 높은 학생일수록 외적 보상과 여가안정성 보상을 중시하였다. 교육포부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외적 보상을, 교육포부 수준이 낮을수록 내적 보상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성역할 태도는 여가안정성 보상을 제외한 세 가지 직업가치 요인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역할 태도와 직업가치 사이에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만 성역할 태도가 여가안정성 보상에 별다른 효과를 미치지 못한 것은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조건의 불안정성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성역할 태도와는 별개로 직업의 안정성 요소를 중시하는 최근의 경향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직업가치 요인들에 대한 측정을 좀더 세부화하고, 측정 도구들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 추출된 이타적·사회적 보상에 대한 측정의 한계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직업가치에 대한 측정을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외의 선행연구들과 달리 한국적 맥락에서 각 직업가치 요인은 독특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직업과 관련된 사회적 조건이 서구와는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적합한 직업가치 요인을 개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진로지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에 적합한 직업가치 척도가 개발된다면 특정한 직업가치 요인에 대한 선호가 직업탐색과 직업선택으로 연계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작업이 가능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진로지도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선행연구들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성역할 태도와 직업가치 간에는 밀

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가치에 대한 성역할 태도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남학생과 여학생이 동일시하는 성역할 태도가 특정 직업가치 요인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보다 미시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가정배경 변인이 학업성취나 사회심리적 변인을 매개하여 직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특정 직업가치에 대한 추구가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되고, 그것이 가정배경 변인과 학생 개인특성 변인과는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포함하는 추후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차제에 직업포부 및 직업선택에 직업가치 및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에도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직업가치 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학업성취가 높고 교육포부 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외적 보상과 여가안정성 보상을 중시하는 반면, 학업성취가 낮고 교육포부 수준이 낮을수록 내적 보상을 중시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의 청소년들 대다수가 직업의 외적 가치나 조건에 집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직업으로부터 특정 가치만을 중시하는 태도는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중학생들의 진로지도에서는 일반인들이 선호하는 직업가치와 학생 개인의 직업가치를 구분하고 명료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고, 각 직업가치가 지닌 다양한 의미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영배(2004). 중학교 청소년의 직업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http://www.youthnet.re.kr/panel/data_paper_view.asp?p_id=6&search_f=&search_c=&pageno=1(2006. 2. 20).
- 김동수(1987). 고등학교 학생의 직업가치관과 직업선택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병숙·강일규·진미석·장원섭·김해동·권진희·정윤경·정현식·이양구(1998). 한국인의 직업의식조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경숙(1983). 고등학교 학생의 직업포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류인자(1999). 청소년의 직업관과 직업선호도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광춘(1992). 수산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결정형태에 관한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제4권 제1호, pp.16-29.
- 박보경·이종승(2002). 직업성격 유형과 적성 및 직업가치관의 관계. 교육발전논총(충남대학교), 제23권 제2호, pp.59-83.
- 안도현(2000). 중학생의 진로가치관과 진로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한주·정철영(1998). 중학생의 직업 가치관과 직업 선호도에 관한 연구. 직업교육연구, 제17권 제1호, pp. 41-54.
- 이옥(1993). 한국 학생청소년의 직업개념인식과 직업가치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15호, pp. 32-44.
- 이은경(2002). 대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직업가치 및 진로의식 성숙과의 관계. 학생생활연구, 23호, pp. 75-93.
- 이석재(1989). 성별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선호 가치. 교육학연구, 제28권 제1호, pp. 135-145.
- 정사교(1999). 직업가치관과 직업선택에 관한 실증적 연구-경기도 상업계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진동렬(1996). 중학생의 진로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병률(1986). 중학교 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의식 분석. 조선대학교 교육논총, 제2권 제1호, pp. 265-290.
- 최영준(1990). 농촌고등학교 학생의 직업포부 인과관계모형에 관한 연구. 직업교육연구, 제9권 제1호, pp. 115-130.
- 홍영란(1983). 고등학교 학생의 직업포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Daymont, T. N. and Andrisani, P. J.(1984). Job preference, college major, and the gender gap in earning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19 No. 3, pp. 408-428.
- Eccles, J. S.(1994). Understanding women's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choic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Vol. 18 No. 4, pp. 585-609.
- Hearn, J. C. and Olzak, S.(1981). The role of college major departments in the reproduction of sexual inequality, *Sociology of Education*, Vol. 54 No. 3, pp. 195-205.
- Heckert, T. M. and Wallis, H. A.(1998). Career and salary expectations of college freshmen and seniors: are seniors more realistic than freshmen?, *College Student Journal*, Vol. 32 No. 3, pp. 334-339.
- Heckert, T. M., Droste, H. E., Farmer, G. W., Adams, P. J., Bradley, J. C., and Bonness, B. M.(2002). Effect of gender and work experience on importance of job characteristics when considering job offers, *College Student Journal*, Vol. 36 No. 3, pp. 344-355.
- Herzog, A. R.(1982). High school seniors' occupational plans and values: trends in sex differences 1976 through 1980, *Sociology of Education*, Vol. 55 No. 1, pp. 1-13.
- Lueptow, L. B.(1980). Social change and sex-role change in adolescents orientations toward life, work, and achievement: 1964-1975,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 43 No. 1, pp. 48-59.
- Major, B. and Konar, E.(1984). An investigation of sex differences in pay

- expectations and their possible cause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27 No. 4, pp. 777-792.
- Marini, M. M.(1989). Sex differences in earnings in the united stat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15, pp. 343-380.
- Marini, M. M., Fan, P., Finley, E., and Beutel, A. M.(1996). Gender and job values, *Sociology of Education*, Vol. 69 No. 1, pp. 49-65.
- Marini, M. M. and Greenberger, E.(1978). Sex differences in occupational aspirations and expectations, *Sociology of Work and Occupation*, Vol. 5 No. 2, pp. 147-178.
- Wright, J. D. and Wright, S. P.(1976). Social class and parental values for children: a partial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the Kohn the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1 No. 3, pp. 527-537.

ABSTRACT

A Study on Job Values of Middle School Students

Kim, Jung-Sook*

This study explored the job values of middle school students in Korea by examining differences in job values and determinants of job values. I used the 2004 KYPS(Korea Youth Panel Survey) data of 3,449 middle school seniors in this study. Students' preference for job value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parents' education, socio-economic status, students' sex, and educational aspira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eterminants of job values, the findings indicated that individual related variables such as sex, academic achievement, educational aspiration of students, and sex role attitude significantly affected job values than family background variables. These findings suggested that specification of job values's measurement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job values, family background and individual related variables should be examined.

Key Words : middle school students, job values, extrinsic reward, intrinsic reward, sex role attitude

투고일 : 3월 28일, 심사일 : 6월 5일, 심사완료일 : 6월 20일

* Korea University